베드로후서 1:19~21/요 8:1~11 성경의 모든 예언

1. 베드로가 편지에 쓰기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벧후 1:13)"고 했습니다. 여기서, "옳은 줄로 여긴다"라는 말은, 그가 장막에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겠지요? 살아 있는 동안에 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2. 우리가 이 표현방식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편지가 아님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이건 그냥 그가 옳은 줄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말이란 뜻이지요. 반대로 표현하자면,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깨우거나 생각나게 하는 일이 베드로의 사명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3. 19절을 읽어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하라는 경고는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서술일 뿐입니다.

4. 베드로의 편지는 무슨 도그마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편지를 읽는 우리들도 이 편지를 도덕적 권면이나 또는 어떤 의무나 강압으로 받지 않아야 좋습니다. 이건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 요새는 교회를 '컴뮤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네 사랑방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때, 이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놓여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설교라는 방식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6.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예배란, 미련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설교에서 감동을 받는다? 어불성설이지요. 실제로도 설교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정교한 논리는 항상 결핍되지요. 설교에는 감동도 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암 직도, 먹음 직도 하지 않지요.

7. 그래서 만약 성도가 교회에서 진선미가 듬뿍 발린,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이성적이고 정의로운 그 무언가를 찾는다면, 교회를 나와 왕궁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셔야 하고, 또 학술강연이나 논문발표회를 찾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그런 훌륭한 것을 기대하는 것 부터가 이상한 것입니다.

8. 그렇다면 이 편지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베드로를 이해해야 할까요? 미리 정답을 밝히자면, 율법도 논문도 아닌, "예언으로" 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말 안에서 이것을 이미 밝히고 있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9.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의 편지를 문학이나 율법이 아닌, <u>예언으로 듣는다</u>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그의 말을 예언으로 이해하는 방법일까요? 다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1)**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u>이것</u>에 주의하는 것**이지요.

10. 19절 말미에 "이것에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란, 바로 그 앞에 제시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의 편지와 또 그 편지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1. 한 걸음 만 더 나가서, “이것에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란? 바로 “예언”이라고 번역된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이란 즉,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것이란, 곧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다고 예언하고 있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2.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무엇이 그 소재여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주제는? “**더 확실한 예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굴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설교해야 합니까? “예수”입니다.

13.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해석임을 말하기 위해 베드로는,“**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를 비치고 있는 그 등불에 대해, 그것이 예수라고 설교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14. 그렇게 선포하는 광경을 두고 예수님은 스스로, 등경 위에 둔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마 5:15)”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러한 비취임에 대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말하길, “**돋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지요. 또 그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눅 1:78,79)고 했습니다.

15.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6:3)”라고 했습니다.

16.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에 말하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다**(엡 5:14))”고 했습니다. 단 사도 요한은,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지요. 모두가 다 빛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러니까, 2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를 가리키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사사로이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등불이 자기인 줄 오해하지요. 그것이 휴머니즘입니다. 또 자기가 누군가를 비추어야 한다고 착각하지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18.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돌아가던 길에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을 만나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행 8:34) 여기서, 자기를 가리킨다는 자가 휴머니스트들이고, 타인을 가리킨다는 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19. 그러나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진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이 예수임을 밝힌 것이지요. 베드로처럼 말하자면, 더 확실한 예언으로서의 예수를 조명한 것입니다.

20. 그런데 이것을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느 구절이든 자기에게 하는 말로 믿지요. ‘사사로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다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줄 착각하고, 또 다 자기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지요. 물론 딴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는 분이 더 많습니다만.

21.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심판을 요구했지요. 그때 예수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22. 이걸 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다 그곳을 떠났지요.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없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23. 정작 "죄 없는 자"란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바로 그곳에서 유일하게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전이었기 때문이지요. 성전에서 누군가의 죄를 묻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사형을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24. 그러나 이 말에 누구의 양심이 찔렸다고 했습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휴머니스트들! 아니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 만이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 그것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로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지요.

25.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주제는 지혜로운 심판도 아니고, 슬기로운 유대인도 아닌, 오직 "예수"이시지요. 어떤 예수입니까? 심판장으로서의 예수,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26. 그러나 그곳의 심판장이신 주인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이시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율법도 아니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의 강령도 아니지요.

27.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이 일이 성전에서 일어난 이후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선포하시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다른 말로, 세상의 빛은 예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28.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예언"의 자리에 "예수"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의 뜻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임이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 여러분 이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이지요. 그가 예수임을 말하지 않는 다른 많은 주장들과 사사로운 해석을 뒤로하고, 이 말씀 속에 예수가 있음을 믿고, 이 속에서 예수를 찾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라는 말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